

마음 열기

찬송가 528장을 함께 부르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요한복음 21장 1-6절, “계속 찾아오심”

예수님은 낙심하여 어두워진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고,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고, 다른 제자들 역시도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들은 여러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 심령이 어두워지고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신들의 원래 모습이었던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1-3절).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날이 새어갈 때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예수님은 다시 그 바닷가에 먼저 찾아와 서 계셨습니다(4절). 저들이 세리였을 때에도, 죄인이었을 때에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한 자였음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 제자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들, 두려움과 근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고 어두움에 붙잡혀 심령이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죽어가면 세상일이 잘 풀려도 기쁨이 없고 무엇을 해도 소망이 없이 무딘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말씀과 환경, 사람을 통해 오늘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세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롬8:35-39).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5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아셨고, 낙심한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믿음이 약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얇은 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7절). 이처럼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으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심령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6절a).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6절b).**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에 일어난 역사였습니다(눅5:1-11). 이 역사를 통해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렸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백하며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7절).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사람의 소리는 따라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는 내 고집과 게으름, 탐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작은 것 부터라도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때에 막혀 있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닫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참된 회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음말.

제자들은 깊은 상처와 두려움으로 인해 심령이 어두워져 사명을 잊고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아날 때까지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 계속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상한 심령이 다시 살아나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최근 나의 심령을 어둡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2.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셨던 적이 있나요?
3. 내가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결단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게으름과 욕심을 회개합시다.
2. 날마다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끝을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합시다.
3.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백과 _ “기쁨 :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누리는 복”

복음 중심 공동체의 결정적인 특징은 기쁨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기쁨이 부족하다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인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칭의(Justification)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포하신 단번의 사건입니다(롬5:1).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완벽하게 의롭다 함을 얻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성화(Sanctification)**는 구원받은 신자, 즉 칭의받은 성도가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과정입니다(빌1:6).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가 바로 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성화로 칭의를 얻으려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확신을 나의 성화(순종의 여부)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어두움과 낙심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고, 당연히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착각과 혼동을 넘은 나의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를 믿기 때문에 패배감, 죄책감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나의 성화가 얼마나 훌륭한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롬4:5). 나의 노력이 부족할지라도, 이러한 나조차도 용납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을 때 영원한 기쁨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순종의 강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진리가 깊이 스며들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신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 생명의 말씀사

FAMILY 나눔

2026년 6월 14일

계속 찾아오심

요한복음 21장 1-6절

